

전교조 '법외노조' 파장 ... 학부모들 "학생 피해 보면 안 돼"

진보 성향 광주·전남 교육청 후속 조치 '골머리'

정부가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 통보를 함에 따라 진보 성향의 광주·전남 교육청은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후속 조치가 이뤄질 경우 교육청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한다는 방침이어서 지역 교육계에 큰 파장이 미칠 전망이다.

24일 광주·전남 교육계에 따르면 전교조가 15년 만에 합법 노조의 지위를 상실함에 따라 그동안 누렸던 노조법상 권리를 잃게 됐다. 단체협약체결권이 없어지고, 노동조합이라는 명칭도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특히 25일 전국 사·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에서 법외노조에 따른 후속 조치가 내려질 경우, 전임자들은 학교로

복귀해야 하고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은 사무실은 비워줘야 할 처지가 된다. 광주·전남에서 활동 중인 전교조 전임자는 모두 10명이다. 광주는 지부 전임자 4명과 본부 파견자 1명이 고, 전남은 5명 모두 지부 전임자다. 복귀 명령이 내려지면 학교 현장은 혼란스러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 대신 학교에 근무 중인 기간제 교사가 모두 해고되기 때문이다.

기간제 교사는 해고되고 전임자는 복귀를 거부할 경우, 학교에서는 담양교과목이나 담임교사 부재 현상이 나타나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전교조 사무실 지원문제도 골칫거리다. 광주의 경우 교육청 산하기관 건물의 한 사무실을 무료로 사용하고

광주·전남 전임자 10명

복귀 땀 기간제교사 해고

있고, 전남은 교육청이 사무실 임대보증금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교육부 지침이 내려오면 사무실 지원은 끊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전교조 지부와 시도교육청이 맺어 온 단체협약은 앞으로 하기 힘들지만 진보성향의 양 교육청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정책협약의 사업예산 지원 등의 방법으로 협력관계를 지속할 수는 있다고 보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전교조 광주·전남지부는 정부 방침에 맞서 강경 대응에 나설 방침이

전교조 역사

1989년 5월28일	전교조 창립
정부, 1527명 파면·해임	
1994년 3월	전교조 조건부 복직
1999년 7월1일	합법 노조 인정
2010년 3월	정부 '해직자 인정' 규약 시정 명령
2012년 9월	정부 2차 시정 명령
2013년	정부 규약 개정 촉구
9월23일	정부 규약 개정 최종 통첩
10월 16~18일	전교조 총 투표 시정 명령 거부
10월24일	정부 법외 노조 통보

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이날 오후 광주역 광장에서 촛불집회를 열어 전남지부도 목포노동자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 통보에 강력히 항의했다. 특히 광주지부는 교육부가 전임자 복귀명령 등 후속조치를 할 경우 교육청 천막농성과 조합원 결의대회를 열 방침이다.

교원단체와 학부모들의 반응은 크게 갈렸다. 교원단체와 학부모들의 반응은 크게 갈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법의 테두리에서 활동하길 기대했는데 최종적으로 법외노조로 결정될 걸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학생 학습권을 침해하는 공동수업·연가투쟁 등 신중하게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인숙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사무처장은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하려는 정부 명령을 거부했다고 일방적으로 법외노조를 통보한 것일 뿐 분도 근거도 없다"며 "9명을 이유로 6만명이 활동하는 노조를 설립 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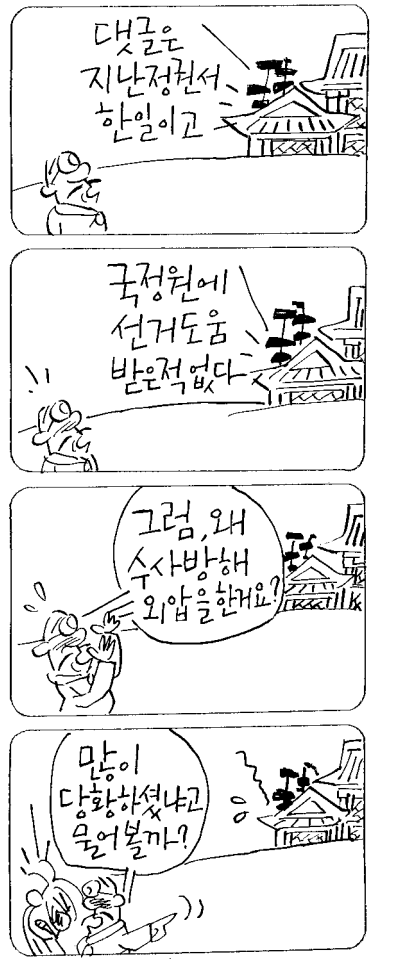
소한 것은 과잉이고 월권으로 노동 후진국임을 보여주는 국제적 망신이다"고 지적했다.

학부모들은 '지나친 처사'라는 비판과 '전교조가 강경 대응하면 학생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가 맞았다. 학부모 김모(여·43) 씨는 "법이 잘못됐다면 법을 고치는 싸움을 해야지 교사가 법을 어겨서야 되겠느냐"며 "갈등이 계속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죄 없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 박모(38) 씨는 "수능을 앞두고 교육계가 혼란스러운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전교조 조합원들도 노조원이기 전에 교직에 몸담고 있는 만큼 법 테두리 안에서 타협점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림기자 jwpark@kwangju.co.kr

1원침 (9003)



완도 약산 주택 불...1명 숨져

24일 새벽 1시40분께 완도군 약산면 김모(60)씨의 조립식 주택에서 불이 나 66㎡ 규모의 집 전체를 태워 소방서 추산 2800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4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날 화재로 거실에 있던 김씨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연기에 질식사 숨졌다. 경찰은 김씨가 마을 주민과 매생이 어장 구역 문제로 고민했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완도=정은주 서부취재본부장

"사랑 달라" 철없는 50대의 행패

○중학교 앞에서 학원을 홍보하며 사랑을 나눠주던 20대 남성에게 '자신도 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폭력을 휘두른 '철없는' 50대 회사이원 경찰서행.

○24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이모(57)씨는 지난 23일 오후 3시30분께 광주시 서구 유촌동 Y중학교 앞에서 학원 홍보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던 김모(24)씨와 시비, 이씨에게 욕설을 내뱉고 사랑을 빼앗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는 것.

○경찰에서 이씨는 "나이 먹은 내가 젊은이에게 사랑을 하나 달라는데도 거절할걸래 순간 화가 났다"며 뒤늦게 후회.

/박정림기자 halo@kwangju.co.kr

인터넷 달군 '엄마의 분노'

'순천 초등학교 폭행 사건 도와주세요' 글 확산
"같은 반 12명이 폭행 동영상 찍어...고문이었다"

순천경찰 수사 착수

'순천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여학생 딸이 교실에서 또래 친구들에게 폭행·고문을 당했다'는 글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 학생 부모 측은 가해 학생들이 딸을 괴롭히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었는데도 학교 측이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다고 주장, 파문이 일 전망이다.

24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는 '순천 초등학교 폭행 사건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된 뒤 조회 수만 10만 여회를 기록하며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피해 학생 부모로 추정되는 A씨는 "지난 15일 딸(9·초교 3년)이 교실에서 같은 반 학생 12명에게 폭행을 당했다. 주먹질이 아닌 고문 동영상이었다. 찍지 말라는 절규에도 가해 학생들은 딸의 머리를 잡고 얼굴에 휴대전화를 들이대고 물을 뿌렸다"면서 "무릎을 꿇리고 온갖 욕설과 괴상에 고통을 질렀다"는 글을 올렸다.

A씨는 또 "교실 모퉁이에서 끌려나가지 않으려고 사물함을 잡고 있는 딸의 팔이 빠지게 당겨

괴롭혔고 그림을 그리던(딸) 아이의 손가락을 회초리로 찍었다"면서 "살려달라는 아이 절규가 아직도 생각난다"고도 썼다.

A씨는 이어 학교 측이 자신에게 동영상 보여주려 하지 않는 등 사건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청소년학교폭력센터에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관련 글은 인터넷에서 수천개의 댓글이 붙으며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으며 "용서할 수 없다. 학교 이름 공개하라. 처벌해야 한다"는 등 누리꾼들의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순천 경찰은 지난 19일 청소년학교폭력센터로부터 사건을 접수받은 뒤 정확한 경위 파악에 나선 상황이다.

해당 학교 측은 "현재로서는 동영상 공개할 수 없다. 다만, (우리가) 동영상 확인한 결과, 폭행·고문과 같은 장면은 없었다"면서 "조만간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피해 학생이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학교 측은 25일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가해 학생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나도 소방대원" 24일 광주시 서구 삼우시민공원에서 열린 '광주시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에 참가한 의용소방대원들이 소방호스 끌기 경연을 벌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성폭행 피해자를 '간통女'로...허술한 경찰

성폭행 피해자가 간통 누명을 쓰고 가장 파탄의 위기에 내몰렸다가 검찰의 치밀한 수사로 누명을 벗었다. 일방적 진술을 근거로 한 경찰의 허술한 1차 수사가 성폭행 피해자를 간통 및 음주운전 피의자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부실한 경찰 수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4일 지인을 강간한 혐의로 A(51)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8월 26일 순천 해변면 도로변 차 안에서 B(46·여)씨를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B씨의 가슴 등 신체부위를 19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B씨가 음주상태에서 운전하고 합의 하에 상관계했다는 A씨의 주장을 근거로 두 사람 모두 강간이 아닌 간통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음주운전 혐

부실한 수사로 가정파탄 위기 몰려

의도 추가 적용됐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인 B씨가 만취해 기억을 못하고 있음에도, A씨의 일방적 진술을 토대로 간통 등의 혐의로 관련 서류를 검찰에 송치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검찰은 B씨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A씨와 업무관계로 만나 술을 마시다가 강간 피해를 당했다는 진술을 확보, 당시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의 동영상을 분석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B씨의 잠꼬대 소리가 들리고 휴대전화 사진촬영이 수차례 들리는 등 강간 범행의 정황을 포착,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박아 A씨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검찰은 이후 사재해 버린 영상을 복원, A씨가 조수석에서 잠들어 있는 B씨의 가슴 등 신체부위를 만지면서 촬영한 사진 27장을 확인하고 성폭행 사실을 입증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편백경침경용 발목펌프

발목펌프는 열역순환장으로 인한 고열압, 당노, 비만 등 각종 성인병들을 원천 해결 시켜줍니다.

직경10cm 길이 30cm 높이 7.5cm 편백나무 반원에 경침과 발목펌프 운동을 겸용할 수 있고 소음 진동방지장치와 운동회수를 자동으로 알리는 음성카운터가 내장되어 있어 운동하기 편리하며 취침 시는 경침으로 이용하며 평생 동안 건강을 지켜주는 운동효과가 탁월한 편백경침경용 발목펌프는 당신의 건강을 확실하게 보장합니다.

★특허등록 제30-0630153 발목펌프★

- ▶ 편백 경침 경용 [음성카운터](아파트용) 60,000원
- ▶ 편백 경침 경용 [음성카운터](주박용) 50,000원
- ▶ 편백 경침 경용 발목펌프(아파트용) 40,000원
- ▶ 편백 경침 경용 발목펌프(주박용) 30,000원

제일건강 | 문의전화: 010-7510-2000 | 광주 광역시 남구 진월동 258-1

선암동 전원 주택용지 분양

자연과 함께 하는 **어등산 빌리지**

광산구 선암동 414-17번지 일원
분양면적 7008㎡(87구)
분양가격 전용면적 평당 130만원
각 필지 면적 약150평~420평(분할·합병가능)
현 토목공사 90%진행중

70% 분양완료!

단지설명 자연속 힐링 주거단지

1. 분양면적은 전체가 쓸 수 있는 전용면적입니다.
2. 각 필지별 상·하수도관 연결공사 완료
3. 각 필지별 건축허가 완료(각종세금 납부완료)
4. 각 필지별 6m도로 접

찾아오시는길: 선암지구, 어등산골프장, 호남대학교, 어등산 빌리지

투신속 친한사람들 행복주거타운

선운공인중개사 | 010-5165-0013 | 010-2475-0933

특허방수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시험회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단열복합시트

하자없이 20년은 너뿐이 가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2중단열 방수, 천정 결로방지, 절연방식 시공, 내구성 탁월

태양열차단, 냉기차단
여름철 실내온도 3~5℃, 겨울철 실내온도 3~5℃
전기료 30~40%, 난방비 15~20%

냉방비 절감, 난방비 절감

냉·난방문제! 방수와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본사 전속모델, 탤런트 이영후

IPALG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010-6603-0405 | 광양대리점 (061) 795-0485